

IMF체제하의 멕시코의 경험적인 사례와 제주관광산업의 발전방향

김 중 섭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990년대 초에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던 멕시코는 1994년 12월 20일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1995년에는 극심한 외환 위기를 겪지만 2년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1997년에는 7%라는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였다. 멕시코의 회복에는 1995년 3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관광산업의 기여가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 우리나라도 멕시코와 비슷한 외환 위기를 겪고 있으며 관광 산업 또한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관광산업의 부흥이 절실하며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도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멕시코의 외환 위기와 멕시코 관광산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특히,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 보려 한다.

멕시코의 정치적 불안과 외환 위기의 발생

1990년대 초에 멕시코 경제는 1980년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고 있었다. 또 1994년에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성장의 가속화를 기대하게 하였다. 1994년 1/4분기 치아빠스주(Chiapas)에서 발생한 농민들의 무장봉기는 자본투자를 약간 감소시켰으나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직접투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러나 3월에는 콜로시오(Colosio) 여당 대통령 후보가 암살되었고 이로 인한 불안은 멕시코의 외환시장을 뒤흔들게 된다. 이 사건이 특히 외국인들을 불안하게 한 이유는 이 사건 자체가 여당인 제도혁명당(PRI) 내부의 갈등이 표출된 사건이라고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를 즈음한 미국 금리의 상승은 멕시코의 정치불안과 더불어 외국인들의 멕

시코에 대한 자본 투자의 감소를 가져 왔고, 꾸준히 유입되던 외국 자본은 방향을 바꾸어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환율은 10% 가량 평가절하되어 밴드의 상한선 가까이 올라갔는 데도 평가절하압력은 약해지지 않아 결국 이 밴드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고에서 100억불 가량을 투입해야 했다.

페소화로부터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 정부는 한자리수 숫자(9%)로 내려왔던 페소화 표시 정부 채권(Cetes)의 이자율을 두배(18%)로 뛰게 내버려 두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Cetes를 더 이상 사려 하지 않았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Cetes의 이자율을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달러 표시 국채(Tesobonos)를 대량으로 발행하였다. 이 때 페소화 표시 국채에 머물고 있던 자금은 대량 Tesobonos로 옮겨가게 된다. 1994년 초에 14억 달러에 불과했던 Tesobonos는 연말에 약 300억 달러로 늘어난다. Cetes는 227억 달러에서 54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플로시어 여당 대통령 후보 암살 이후에도 멕시코의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6월에 국민의 신임을 받던 가르베소(Carpizo) 내무장관이 사임하였다. 9월에는 후란시스꼬 루이스 마시에(Francisco Ruiz Massieu) 여당사무총장이 암살당하였고 그의 동생인 마리오 루이스 마시에(Mario Ruiz Massieu)는 형의 죽음에 제도혁명당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당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들은 멕시코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현상으로 멕시코의 정치적인 불안을 가중하기에 충분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경제정책적으로는 비슷한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즉 외환 보유고로 환율을 방어하였다. 외환보유고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Tesobonos의 발행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환율 고평가의 유지로 경상수지적자는 오히려 증가돼 1993년 GNP의 6.5%였던 경상수지적자는 1994년에는 7.9%로 증가하게 되었다.

물론 환율을 평가절하하자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Salinas 정부로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평가절하를 할 수가 없었다. 몇번에 걸친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고의 반을 사용한 중앙은행은 1994년 11월 당시에 외환밴드의 상한 가까이 위치한 환율의 유지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다. 11월 11일 160억 달러가 넘던 외환보유고는 12월 16일에는 111억 달러로 줄어들게 되었다.

극심한 평가절하 압력과 외환보유고의 고갈에 직면하자 Zedillo 정부는 결국 취임 한지 20일만인 12월 20일 환율 밴드를 15%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평가절하를 단행한다. 그러나 압력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대량의 환투기가 일어나 이틀 뒤 환율을 자유변동에 맡기게 된다. 이 때 환율을 다시 40% 평가절하한다.

IMF의 단골 손님

1994년 12월 20일 평가절하를 단행한 멕시코는 급속도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다.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어 멕시코의 주식과 채권을 투매하였다. 멕시코 정부로서는 외국환 표시 단기 외채의 만기연장을 할 수 없었고, 투자자들이 페소를 달러로 바꾸기 시작하자 달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외환보유고가 곧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1995년 1월 30일 미국, 캐나다, IMF, 국제결제은행을 주축으로 한 520억 달러의 금융지원이 발표되어서야 다시 한 번의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IMF의 정책권고

520억 달러의 지원 조건은 3월 9일 정부의 경제비상대책수정안(PARAUSEE)에 반영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신용 팽창 억제 : 100억 페소 (본원통화의 17.5%)
- 2) 인플레이션 : 대책의 17%에서 수정안에서는 42%로 조정
- 3) 경상수지 적자 : 대책 140억불에서 수정안에서는 24억불로 조정(1994년에는 296억불이었음)
- 4) 예상 환율 : 대책의 달러당 4.5페소에서 수정안에서는 6페소로 조정
- 5) primary balance 재정흑자 : 수정안에서는 1994년 흑자에서 1% 증가시킨 원안보다 1% 더해 GDP의 4.4%
- 6) 공공요금 인상 : 에너지 값 약 35%
- 7) 부가가치세 : 10%에서 15%로 인상
- 8) 은행권 지원 프로그램
- 9) 민영화 계속 추진
- 10) 성장률 : 대책의 0%에서 수정안에서는 -2%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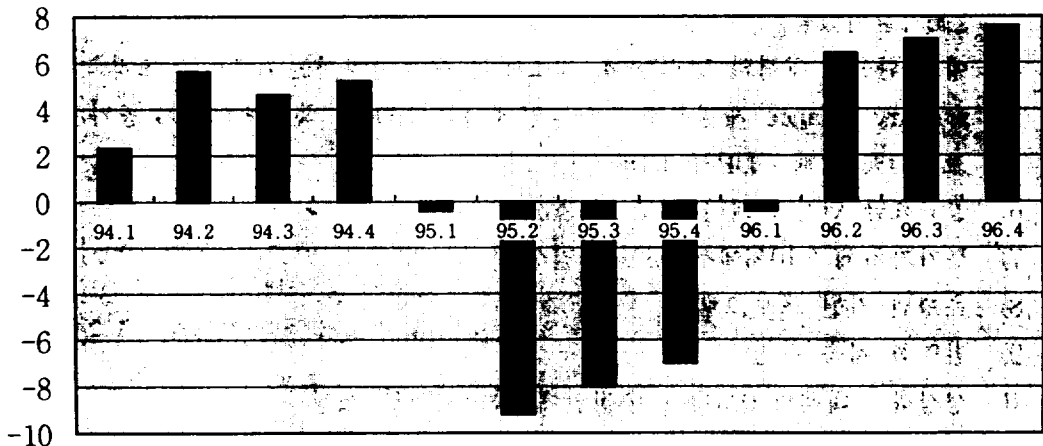
이러한 IMF 조건들은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되었다. 많은 부분은 오히려 초과 달성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경제비상대책상의 계획과 사후의 결과를 비교하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변 수	수정안의 계획	결 과
신용팽창/본원통화	17.5%	달성
재정흑자/GNP	2%	달성 : 3.2
경상수지적자	24억 달러	달성 : 16억 달러
물가상승률	42%	미달 : 52%
평균환율(페소/\$)	6	미달 : 6.4
GNP성장률	-2%	미달 : -6.2%

1995년의 마이너스 성장

520억 달러의 국제금융지원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이 즉각적으로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또 IMF 정책권고의 성실한 수행이 경제를 금세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평가절하와 외자유입의 중단 또는 유출로의 반전은 국제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외국으로부터의 자원 유입감소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생산의 감소를 갖고 왔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는 15.9% 감소하였다. 수출 또한 33%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 성장률은 1986년의 -3.6%와 1983년의 -5.3% 보다도 낮은 것이었다.

< 성장률 >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기업과 가계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부채를 축적하였다. 1991~2년에 민영화된 은행들의 양적인 팽창이 이러한 민간부문의 채무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또한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많은 자금을 빌려 썼었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터진 1994년 말에, 민간부문은 이미 과중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1995년의 외환 위기는 민간부문이 과중한 부채를 안고 있었다는 면에서 공부문의 과중한 외채로 야기된 1982년의 외채 위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의 채무부담은 수요의 급감과 더불어 기업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였던 것이다. 이때 소비 지출은 11.7% 감소하였는데, 여러 번 경제 위기를 겪은 멕시코로서도 이러한 극심한 소비 감소는 처음 겪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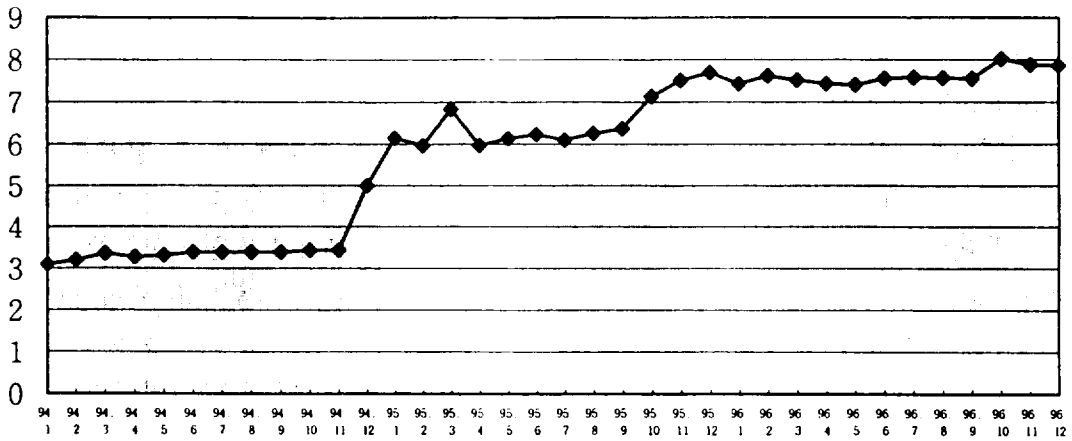
투자는 그 감소가 더욱 현저하여 30.9%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도 민간 투자는 33.9% 감소하여 공공 투자의 18.9%보다 감소의 폭이 훨씬 컸다. 이러한 민간 투자의 감소는 경제 내의 전반적인 자금부족과 고금리, 평가절하, 성장 전망의 불투명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 자금유입의 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는 국내저축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자유입이 1994년 GDP의 8%에서 1995년 GDP의 0%로 감소하면 국내저축에 상응하는 증가 없이는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 저축은 1994년 GDP의 16%에서 1995년 GDP의 18%로 2% 증가했을 뿐이다.

분기별로는 제3사분기에 가장 생산 감소가 컸고, 부문별로는 건설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제조업 생산이 4.8% 감소한데 비해 건설업 생산은 23.5%나 감소하였다. 도소매, 식당, 호텔업도 15.6%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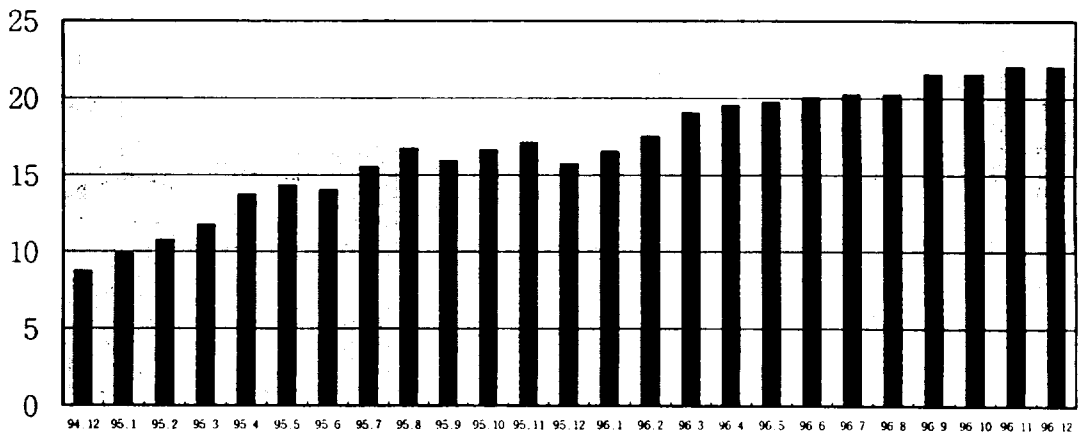
이자율과 환율

1995년 첫 몇 달 동안 멕시코의 금융 및 외환 시장은 극도의 불안정을 보였다. 구 제금융이 발표되기 전까지 외국 투자자들은 멕시코가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를 갚을 달랠가 없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가용 외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외채를 갚기에도 부족해 보였다. 사후적으로 따져서 이 두려움은 근거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멕시코가 첫 사분기에 갚은 외채 액수를 보면 Tesobono \$59억,

< 환율 >



< 부실여신비율 >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는 경제비상대책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의 발표는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다. 도표에서도 보듯이 환율은 3월에 상당히 떨어져 6월과 9월 사이에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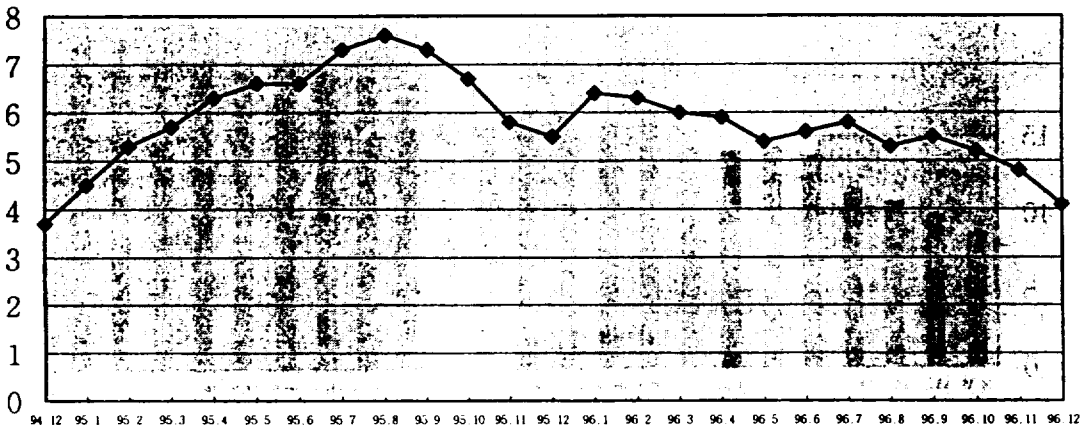
이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서도 신뢰를 회복하여 멕시코 은행들도 외채의 만기 연장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규 차관을 얻는 은행도 있었다. 5월달에 몇몇 공공기관이 국제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하여 멕시코는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기존 외채의 만기연장과 채권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외환보유고는 4월

과 8월 사이에 82억 달러 증가하였다.

실업과 임금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감소는 실업의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실업률은 1994년의 3.7%에서 1995년 3사분기에 최고에 달해 7.6%에 이르렀다. 이것은 약 140만명에 해당하는 실업자가 생겨나 총실업자수가 270만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여기에는 주 15시간 이하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통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멕시코정부 내에서조차 이 수치는 과소 평가된 것으로 생각하는 부서도 많다. 한 예로 재무부에서는 1995년 총실업자수를 400만 명으로 보았으며 노동부에서는 600만명으로 보았다. 물론 노동조합에서는 이 수치들조차도 과소평가된 것으로 비판하고 실제로는 천만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 실업률 >



부문별로는 제조업부문의 고용이 7.6% 감소한데 비해, 생산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설업의 고용은 40%나 감소하였다. 유일하게 고용이 증가한 부문은 보세가공 수출 산업으로서 10% 증가하였다.

근로자는 이중의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다. 근로자들에게 일단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일자리를 지키더라도 실질임금의 삭감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 평균임금은 12.5% 감소하였다. 고용감축과 실질임금 삭감을 모두 고려한 총실질임금은 19.2%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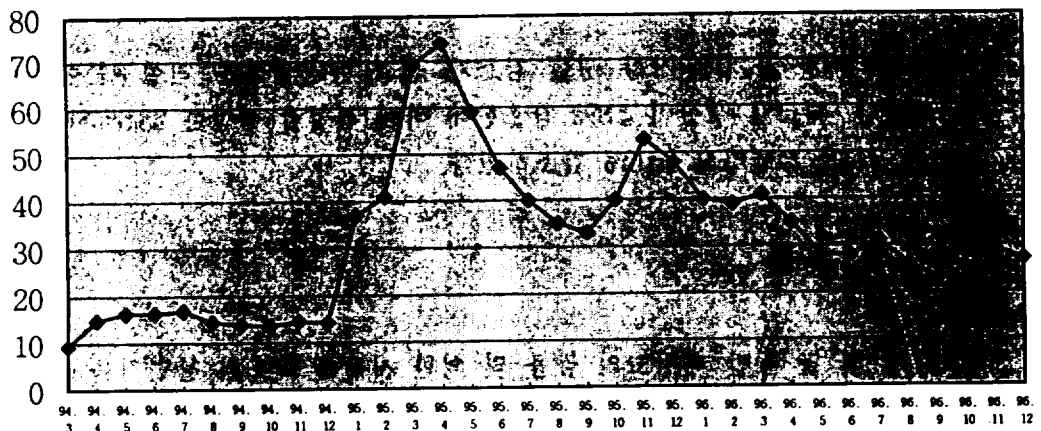
공공부문 채무 \$34억, 은행권의 채무 \$25억, 민간부문 채무 \$12억 등 129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거액의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멕시코는 500억 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제공 받기에 이르지만, 복잡한 협상과정은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심리를 안겨주고 금융 및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멕시코가 이자금을 쓰는 조건들을 이행할 능력을 의심 받아 금융 및 외환시장이 곧 안정되지는 않았다.

성장의 감소, 높은 이자율과 평가절하는 채무를 안고 있는 기업과 개인의 채무 이행 능력을 저하시켰다. 1991~2년의 은행 민영화 이후 크레딧 카드와 주택용자 등 개인에 대한 은행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이자율의 상승과 실질임금의 하락은 개인 채무자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 이것은 반대로 금융기관의 부실여신비율을 상승시켜 금융권의 부실화를 갖고 오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총체적인 불안은 자본유출을 갖고와 환율을 상승시켰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로서는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 이자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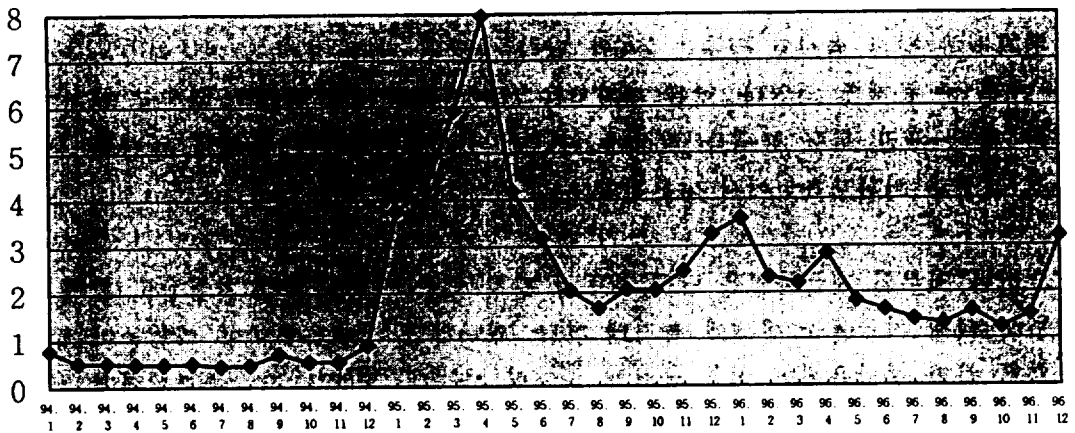


그러나 대규모 감원, 감봉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과격한 대립은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쟁의신고는 1994년에 비해 2.5% 증가했지만 실제 파업은 오히려 17.2% 감소하였다.

인플레이

안정화정책으로 1993년과 1994년에 간신히 한자리 숫자로 만들어 놓은 물가상승률은 1995년에는 52%로 경총 뛰었다. 물가상승요인은 주로 평가절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100%가 넘는 평가절하를 겪고도 물가상승을 그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긴축재정 통화정책, 임금상승 억제와 낮은 경제 성장 때문이었다. 물가 상승은 1995년 첫 4개월 동안 가속화되어 4월에 최고조에 이르러 한 달에 물가가 8%나 올랐다.

< 월인플레이율(%) >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가격의 일반적인 상승을 말하는 것이지만 평가절하로 야기되는 물가상승은 상대가격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환율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즉각적으로 받는다. 물론 재고가 많을 때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제품은 이것들을 얼마만큼 사용하는냐에 따라 가격 인상요인이 생길 것이다. 국내 원자재나 중간재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출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던 제품도 평가절하 이후 수출을 하면 폐소화로 환산해서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대신 국내에서 판매

할 때도 높은 가격을 받으려 할 것이다. 가격 상승속도는 얼마만큼 국내 판매를 수출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이른바 비교역재는 상대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비교역재 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교역재 부문의 대표적인 것은 서서비스부문, 건설부문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1995년 가구, 식품 등의 가격은 60% 이상 증가했음에 비해 외식, 교육, 임대 가격은 40%밖에 오르지 않았다.

금융위기

평가절하 당시 멕시코 정부는 290억 달러 상당의 달러 표시 단기국채(Tesobonos)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낮은 외환보유고는 외국인 투자가들로 하여금 멕시코 정부의 달러 채권 회수 능력을 의심케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발단은 정부의 달러 채권과 외환보유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급불능은 달러 채무를 갖고 있는 시중은행과 기업들도 함께 달러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이나 기업들이 달러를 필요로 하면 중앙은행이 이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정부가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게 되면 달러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멕시코 정부의 채무 상황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자 멕시코의 시중은행과 기업들도 외국 은행에서 자금을 꾸어 오거나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평가절하로 인한 환차손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금융부담 증가, 외국인 채권자들의 자금회수 때문에 기업들의 부실 채권이 급증하였다. 외채를 갖고 있던 금융 기관들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평가절하 당시 시중은행의 외화 채무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과도한 외화 채무를 안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2년에 설정된 이 한도는 외채를 갚기 위한 시중은행의 외환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중앙은행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정해진 것이었다.

물론 금융부문은 외환 위기 이전에도 문제를 안고 있긴 하였다.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은행의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부실대출도 이미 상당히 늘어나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이러한 대출 증가는 은행의 민영화 이후 일어난 막대한 외자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금리 자유화와 공공부문의 자금수요 감소에도 원인이 있다.

이 기간에는 은행이 대출을 할 때나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요구할 때 건전성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국영으로 운영되어 공공부문에의 신용 제공만 주로 해왔던 은행은 민영화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조직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기업의 신용과 건실성, 그리고 투자 계획의 채산성과 위험성을 평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민영화 이후 새로 들어서기도 한 새로운 은행 경영진은 은행의 대출 업무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1993년 경제 성장률이 0.7%로 떨어지자 그 동안의 부채 증가는 과도한 금융부담으로 기업들을 짓누르기 시작하였다. 이 때 은행들은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데 있어서 그 전보다는 훨씬 체계적인 신용 평가를 하기 시작하였지만 부실대출비율은 이미 늘어나기 시작한 때였다. 1994년 3월의 플로시오 대통령 후보 암살 이후 환율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상승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1994년 12월 평가절하는 은행의 부실대출비율을 급상승시키고 자기자본비율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가 금융위기로 급속히 확산되었던 것이다.

수출증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1995년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12.8% 감소하여 경상수지는 16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이 액수는 IMF와 합의된 24억 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초과 달성한 것이었다. 따라서 1982년 위기에는 경상수지적자의 감소가 주로 수입 감소로 이루어졌는데 비해 1995년에는 수출 증가를 통하여 경상수지 감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반면 수입의 감소는 투자의 감소를 수반하고 있어 적응 방식 자체는 1995년의 경우가 훨씬 바람

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출 증가의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실질환율의 평가절하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달러로 환산된 임대, 노동 비용이 줄어들어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었다. 또 수요 감소로 가격이 침체되어 있는 국내 시장보다는 페소로 따져서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국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도 늘어났다. 그러나 실질 환율의 평가절하는 1982년에도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평가절하가 수출 증가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출 증가의 또다른 중요한 원인은 많은 수의 기업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하여 비용을 줄이고 초과 노동력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온 무역 자유화와 규제 완화 등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기업들로 하여금 살아남기 위해 자체적으로 비용절감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강요하였다. 수입자유화와 규제완화는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여 경쟁에서 지는 회사를 도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멕시코의 제조업부문 생산성이 1986년부터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재기하는 멕시코

1995년을 마치면서 멕시코 정부는 1996년에는 완만한 성장을 할 것을 목표하였고 또 일반인들도 그렇게 되리라 예상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평가절하 이전의 비교적 안정된 성장으로 고무되었고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앞으로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고 희망에 차있던 일반 시민들은 또 한 번의 외환 위기로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 중에는 1982년의 외채 위기를 되새기며 다시 10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엔 회복이 빨리 찾아왔다. 1995년 1사분기부터 1996년 1사분기까지 5사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멕시코 경제는 1996년 2사분기부터 다시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1~2%가 아니 6%가 넘는 성장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에는 2사분기보다 더 높은 7% 이상의 성장을 이룩하여 결국 1996년 한 해를 통틀어서는 5.1%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신속한 회복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1)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용 회복 : 1982년 외채 부도 후에 멕시코는 국제금융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거의 십년이 걸렸으나, 이번에는 일년만에 국제금융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었다.
- 2) 멕시코는 1985년부터 이미 무역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 금융자유화를 추진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제도개혁이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였다. 이 개혁들은 위기 후에도 계속 추진되었다.
- 3) 이번 위기 후에는 80년대의 위기 때와는 달리 무역개방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가입은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4) 규제 완화와 민영화는 통신과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문 등을 중심으로 심화되어 이들 부문의 효율성 제고는 다른 부문으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5)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금융기관들은 다른 은행이나 외국자본에 인수·합병되어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 6) 정부의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금융부문의 부실이 상당히 제거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줄여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IMF하의 멕시코의 관광산업과 제주관광산업에의 시사점

멕시코가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한 견인차는 역시 수출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33%의 증가를 한데 이어 수출은 1996년에도 18.7% 증가하였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평가절하와 외환위기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켜 이 산업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 관광객 유치도 넓게는 서서비스의 수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가절하는 멕시코에서의 관광을 더 저렴하게 하여 멕시코 관광산업을 더욱 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는 1995년 관광객을 그 전해보다 10% 증가한 2천만명 이상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었다. 1994년까지는 이 부문에 있어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일인당 지출액은 2% 줄어들었지만 관광객의 증가는 관광 부문의 흑자가 1995년에는 30억 달러가 넘어서게 하였다. 1995년 멕시코의 무역수지 흑자가 71억 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관광 산업이 외화 획득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였는지 알 수 있다.

물론 관광 부문 내에서도 내국인 관광도 있고 외국인 관광도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평가절하의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평가절하의 혜택을 주로 받은 부분은 외국인을 주고객으로 하는 부분이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도소매, 식당, 호텔업 생산은 15.6% 감소하여 제조업 부문의 4.8% 감소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았다. 그 이유는 멕시코의 식당, 호텔업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칸쿤 등 몇 군데의 관광지 외에는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내국인의 관광 지출은 경기침체와 실질소득의 감소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내국인을 주고객으로 하는 소규모 호텔들이 경제 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도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부분과 내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과 사업 출장자를 주된 고객으로 하는 호텔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호황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숙박업의 주된 고객으로 삼는 호텔에서도 호텔내의 식당업은 주로 내국인 상대이다. 이것이 멕시코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호텔에서의 식당업이 숙박업의 부수적인 사업임에 반해 한국에서는 식당업이 숙박업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국인을 상대하는 호텔의 식당업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외국인 상대 숙박업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관광산업도 같은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 평가절하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외국으로 가던 우리나라의 신희여행객들도 제주도로 신희여행지를 바꿀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관광비율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내국인 관광이 줄어들어서 관광산업이 침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하는 전략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원화약세와 경기침체가 단기적인 현상이라면 외국인들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안 오는 관광객으로 취급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 물론 이럴 때도 이들을 항구적인 관광객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원화약세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금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항구적인 관광객으로 만드는 것이 제주도 관광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멕시코의 외환위기와 비교할 때 한국의 위기는 오래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 이 점에 유의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몇 년동안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정체되었거나 감소되어 왔다. 이번의 평가절하는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